수시 비중 커지는데…논술 강화로 광주 학생 불리

교육부 '대입 개편안' 주요 내용과 반응

영어선택형 시행도 전에 폐지…"혼란에 빠진 중3교실"

성취평가제·국가영어평가 없던일로…"예산낭비" 비난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대입 개편안을 놓고 일선 학교는 크게 술렁였다.

국어·수학·영어를 수준에 따라 A/B형을 골라 보도록 한 선택형 수능이 올해 첫 시행되는데도 당장 내년부터 영어는 A/B형을 없애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 학교 현장에 이미 도입된 성취평가(절대평가)를 대학 입시에서는 활용하지 않고 현재처럼 상대평가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바뀌면서 대입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선택형 수능 폐지**=교육부 시안의 핵심은 2017학년도 수능 개편방안이다. 교육부는 ▲현행 수능 골격 유지안 ▲문·이과 일부 융합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 3가지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이 가운데 1개를 최종안으로 선택할 방침이다.

어떤 안으로 확정되든 국어와 영어는 문·이과 구분없이 공통으로 출제되고, 수학·탐구영역을 문·이과로 구분하든 탐구영역만 구분하든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앞서 A/B형으로 나눠진 선택형 수능은 점차적으로 폐지된다. 당장 내년 수능(2015학년도)에서 영어는 폐지되고, 2017학년도부터는 국어와 수학도 폐지된다.

한국사는 사회탐구영역에서 분리돼 필수과목이 된다. 24년만의 부활이다.

수능 영어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전면 폐기했다.

이같은 수능체제 변화로 2017학년도 입시를 처음 적용받는 중3 교실은 올해 11월 시작되는 고입 원서접수를 앞두고 우선 새로운 제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성적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느라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면 공부할 과목이 늘어나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이과 일부 융합안이든 완전 융합안이든 간에 인문계 학생은 과학, 자연계 학생은 사회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일반고 교사는 "대입전형을 간소화한다고 해놓고 수능 틀을 바꾸면 어떡하라는 것이냐"며 "교육은 '백년대계'라며 안정성을 유지한다더니 당장 내년부터 변화를 주는 바람에 현 제도에 맞춰 공부한 것들은 '도루묵'이 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을 강화한 조치도 혼란스럽다.

대학이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학생을 뽑는다면 모르겠지만, 정부 압력에 수시에서 내신 반영 비중을 늘리더라도 아예 인원을 적게 뽑으면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중3 학부모 정모(45)씨는 "외고나 자사고에 아이를 보내면 내신성적은 불리하지만 공부하는 분위기가 좋아 수능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정시비중이 늘어난다는데 그럼 외고나 자사고를 보내는게 유리한 것 아닌가 싶다"고 고민했다.

◇**대입전형 학생부·논술 강화**=교육부는 구술면접이나 적성고사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대학입시의 전형 요소를 수능, 학생부, 논술 3가지만 남기겠다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교육부는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고, 수능 위주로 뽑던 우선 선발도 없애라고 권고했다. 학생부의 영향력을 확대해 공교육 정상화를 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대학이 정시와 논술 위주 전형을 확대하게 되면 결국 수험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시에서는 대학이 고교 학력 격차가 반영되지 않은 학생부 대신 논술로 학생들간의 학력을 평가할 것으로 예상돼 논술 전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내신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성취평가제'가 도입되지만 정작 대입 반영은 미뤄져 학교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을 2019학년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상 성취평가제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대학에는 현행처럼 상대평가 자료인 석차 9등급과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편차가 제공된다.

대입전형 체계 간소화 안

구분	전형 유형	주요 전형 요소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	학생부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 입학사정관 등이 전형에 참여하여 학생부를 심층평가하는 경우 등을 포함
	논술 위주 전형	논술 등
	실기 위주 전형	실기 등(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특기자 전형 포함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수능 등
	실기 위주 전형	실기 등(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의 입학전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전형방법을 수시는 4개 이내, 정시는 2개 이내로 간소화

연합뉴스 자료/교육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문형수(고려고 진학부장) 광주시 진학부장협의회장은 "대입 간소화와 수준별 수능의 폐지는 환영할만 하다"면서 "하지만 논술이 강화되면 논술시장은 들썩이고,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방 수험생들은 주요 대학 진학이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되면 수능성적이 좋은 광주 학생들은 더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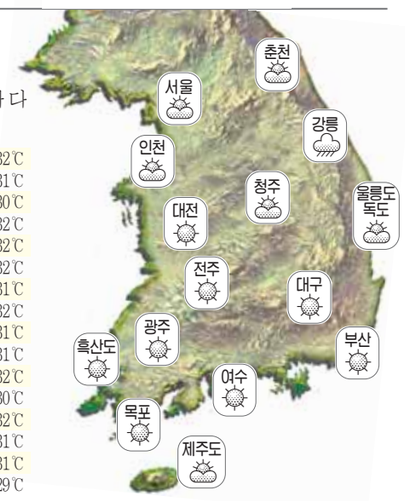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02분 해짐 19시 05분 | 달뜸 23시 33분 달짐 13시 04분

더위 여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다소 크겠다.

광 주	맑음	22/32℃
목 포	맑음	22/31℃
여 수	맑음	23/30℃
나 주	맑음	20/32℃
완 도	맑음	21/32℃
구 례	맑음	19/32℃
강 진	맑음	19/31℃
해 남	맑음	19/32℃
장 흥	맑음	19/31℃
순 천	맑음	18/31℃
영 광	맑음	20/32℃
진 도	맑음	20/30℃
전 주	맑음	22/32℃
군 산	맑음	21/31℃
남 원	맑음	21/31℃
흑산도	맑음	24/2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m
먼바다	남~남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동~남동	0.5~1.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위험	매우높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m
먼바다	남~남서	0.5~1.0m

	밀물	썰물
목포	06:41 19:32	11:54 --:--
여수	00:47 13:53	07:12 19:3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9(목)	30(금)	31(토)	9/1(일)	2(월)	3(화)
날 씨						
최저/최고	23/27	23/26	22/28	22/28	21/29	21/29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비도 건보적용

10월부터 진료비 크게 줄어

오는 10월부터 이른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진단과 치료에 꼭 필요한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 진료비가 크게 줄어든다.

또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기준이 낮아져 소득 하위 10%의 경우 한 해 최대한 지출하는 의료비 규모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서 밝힌대로,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 약 159만명(산정특례 등록자)의 수술(시술) 전·후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다. 지금까지 초음파는 대부분 비급여 대상으로, 관련 진료비를 모두 환자가 부담해왔다. /연합뉴스

내년 추석연휴 닷새 쉬어 좋겠지만…

공휴일 겹치면 평일을 대체휴일로…어린이날도 적용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대체휴일제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첫 적용일은 내년 추석 연휴가 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광복절·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로 규정됐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연합뉴스

직장인들 추석 걱정거리 '과도한 지출'

부모님 용돈·차례상 준비 등 허리휘어질 판

경기 불황 탓에 추석을 앞둔 직장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과도한 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는 다음 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달 중순 20~40대 기혼 직장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3.2%가 부모님 용돈, 차례상 준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지는 점을 꼽았다고 27일 밝혔다.

시댁·처갓집의 불편한 분위기(18.6%), 장거리 운전과 교통 체증(17.6%), 음식 준비 등 가사 노동(16%) 등의 답변도 있었다.

추석 상여금의 용도를 묻는 질문에 비상금으로 숨겨두겠다는 응답이 25.9%로 가장 많았고 저축(25.5%), 밀린 카드값 청산(18%), 부모님 용돈(16%) 등의 순이다.

시댁이나 처갓집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로는 경제력 비교(28.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남편(아내) 좀 잘 챙겨라'(22.9%), '애는 언제 낳을 거니?'(20.1%) 등도 피하고 싶은 잔소리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검찰에 또 불려온 MB정부 '왕차관' 박영준

원전비리 혐의 수사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불린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27일 또 검찰에 불려왔다. 원전 업체의 납품계약 유지 청탁과 함께 측근이자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1·구속)씨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관련해서다.

경북 칠곡 출신인 박 전 차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고지인 경북 영일, 포항지역 출신인 '영포라인'과 가까운데다가 11년간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77) 전 국회부의장의 보좌관으로 일해 전 정부에서 '왕차관'으로 불릴 정도로 실세 중의 실세였다. 박 전 차관은 그러나 27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연합뉴스